

'26. 3. 1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○ 美, 이란의 보복 테러 막아라...美 본토 비상

- 3.5 언론은 미국이 본토에서 이란이나 연계된 세력의 보복 테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연방수사국(FBI)과 국토안보부(DHS)는 주요 도시와 軍 기지 보안 강화 등 테러 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보도
- ※ 워싱턴 DC 경찰국은 지하철역에, 뉴욕 경찰은 문화·종교 및 기타 주요시설을 포함한 시내 각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증강 배치할 것이라 부언

○ 美, 주노르웨이 미국 대사관서 폭발...경찰, 용의자 추적 중

- 3.8 언론은 중동지역에서 미국 대사관이 이란 등에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럽 노르웨이에서도 미국 대사관 폭발이 발생했으나,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이 사건 관련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보도

유 럽

○ 유로폴, 테러 및 사이버 공격 경고

- 3.6 EU 유로폴은 중동 분쟁으로 인하여 친이란 시아파 무장세력인 '저항의 축'에 의한 테러 공격 등 EU 內 '불안정화 활동' 시도 가능성을 제기하며, 테러 및 극단주의 위협이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

중 동

○ 이스라엘,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內 헤즈볼라 거점 포격

- 3.6 언론은 이스라엘 군이 지난 5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 있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에 포격을 했으며, 이로 인해 최소 123명이 사망하고 683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
- ※ 이스라엘 軍 관계자는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준비하고 있으며, 타격지역에 주민대피를 통보하여 피난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부언

아·테

○ 이란, '美와 협력설' 쿠르드족 무장조직 공격

- 3.5 언론은 이란정보부가 이슬람혁명수비대(IRGC)와 공동 작전으로 서북부 국경지대에서 분리·독립 운동을 하는 쿠르드족 무장조직인 「서부의 분리주의 테러조직」의 근거지와 무기고들을 파괴했다 보도
- ※ 정보부는 “이 테러조직들이 미국, 시온주의(이스라엘)의 지원 속에 전쟁을 악용, 서부 국경으로 침투해 도심과 국경지대에서 테러를 저지르려 했다”고 부언

○ 아제르바이잔, 이스라엘대사관 등 노린 테러 저지

- 3.7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이란 혁명수비대(IRGC)가 BTC 송유관과 이스라엘대사관, 유대교 회당 등을 겨냥해 폭탄을 반입하며 연쇄 테러를 준비하다 적발됐다고 발표
- ※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의 연쇄 테러 준비 및 지난 5일 드론공격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란 수도에 있는 대사관 등 모든 외교관을 철수시킨다고 부언

○ 韓 국정원, 중동 상황 대비 테러정보공유협의체 개최

- 3.9 국정원·국정원·대테러센터·외교부·법무부·해수부·경찰청·소방청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「테러 정보공유협의체」를 개최했으며, 이는 대테러 안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현지 교민과 기업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발표
- ※ 국정원은 지난 2월 28일부터 중동 상황 대응 TF를 구성해 원장 주재로 매일 비상점검 회의를 개최하고, 현지 대테러 안전활동도 적극 전개 中

○ 韓 서울시, BTS 컴백 공연 대비 대규모 안전관리 대책 가동

- 3.9 서울시는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(BTS)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파관리·위험요소 확인·구조구급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3,400명의 대응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
- ※ 서울시장은 “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도심 전체를 하나의 행사장으로 보고 교통과 인파관리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”고 당부

역사 속 테러사건

이스라엘, 예루살렘 예시바 총격 테러

- '08. 3. 6. 서예루살렘 소재 종교학교 메르카즈 하라브 예시바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이 소총을 이용,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해 학생 8명 사망, 11명 부상
- 총격범은 약 16분간 학교 안뜰과 도서관에서 약 500~600발을 발사하며,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총격을 가해 다수의 사상자 발생
- 사건 발생 직후 종교학교 학생 1명과 이스라엘 방위군 장교 1명이 개인 화기로 대응하여 가해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며 사건 종료
-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번 공격을 공개적으로 칭찬하였으며, 후속 여론조사에서는 팔레스타인 인구의 84%가 이를 지지함
-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'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'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



테러 상식

< 하마스(Hamas) >

- (결성) 이집트 '무슬림 형제단'의 팔레스타인 지부 소속 강경세력들이 1987년 제1차 '인피파다'(對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)를 계기로 결성
※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캐나다('02.11)
- (연계세력)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, 인민저항위원회(PRC)
- (핵심인물) 칼레드 마샬(現 지도자), 이스마일 하니예(군사부문 책임자)
- (활동지역) 팔레스타인 가자, 서안지구 및 레바논지역 팔레스타인 난민캠프
- (활동수법) 對이스라엘 군·민 대상 폭탄테러, 총격, 로켓공격 및 납치
- (주요테러) '08.12~'09.1 이스라엘군과 하마스간 '가자전쟁' 발발 800여명 사망
'12.11 텔아비브에서 PIJ조직원과 버스폭탄테러 자행, 29명 부상
'23.10 이스라엘 남부지역 대규모 침투 공격, 약 1,200명 사망

